

'온습도 일정' 대장경 보존 비밀

해인사 학술조사단 2년 연구결과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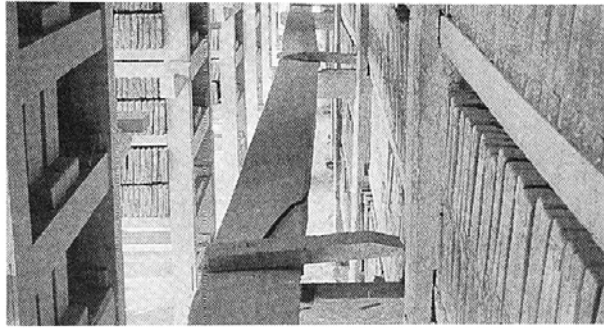
해인사대장경학술조사단이 국내 최초로 대장경관을 보존과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 보존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인사 대장경학술조사단은 지난달 23~24일 이틀간 해인사에서 '해인사 대장경관 학술조사 결과회'를 열고 지난 2년여 동안 국보 제32호와 제52호로 지정된 고려대장경관과 장경각 건물 등에 첨단장비를 동원해 실시한 관고 내부와 경판자체의 온·습도 변화, 통풍구조, 미생물 번식상태와 번지의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현재상태와 지속적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경판의 배치 현황과 상태, 경판의 성상(性状)과 보존 실태, 경판의 구성 수종(樹種), 생물학적 조사를 통한 공중 부유균의 분포와 경판 부식균의 생장특성, 경

판의 마구리 금속 장식 및 못의 성상 등 대장경관의 재질 및 현황이 비교적 정확히 파악됐으며, 대장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대장경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장경각 내의 온·습도 분포와 보존환경 조사에서는 경판전 안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2℃ 이내의 균일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일교차도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고의 위치가 주변보다 습도가 높고 정밀한 통풍구조



▶ 팔만대장경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는 경판에 대한 세밀하고도 신중한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다라장 연결구조·전통식 경판배열 복원 절실 인경작업 미생물 번식 위험...기과교체 신중해야

로 경판이 항상 일정한 습기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대장경이 7백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태로 보존돼 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대장경의 지속적 보존을 위

해 장경각의 일부 구조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등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다라장, 법보전, 동사간고(東寺刊誦), 서사간고 등 4채

의 판고 가운데 현재 관람객들이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수다라장의 중앙통로를 없애고 내부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수다라장의 원래 구조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

다라장을 양분시킨 중앙통로의 벽이 통풍을 막고, 관람객들이 드나들어 판고 내부에 휴먼지를 발생시켜 온도와 습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판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요소가 되는 경판에 한지를 찍어내는 '인경(印經)'도 삼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판고의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현대의 기와로 갈아끼우는 것도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요즘 기와가 옛 기와에 비해 무게가 40~70% 정도 무거워 건물구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판배열의 방식도 원래대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경판들을 비스듬히 세워 경판 사이의 통풍을 막을 뿐 아니라 판가(板架)의 층별 통풍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사 대장경 학술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영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생물학, 임학, 공기역학, 기상학, 화학, 건축학 등 제반 관련학문의 상호공조와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총체적인 조사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현대과학에 의한 고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접근과 측정장비 시도는 세계보존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만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은혜사
심검당

學道如初不變心
(학도여초불변심)
千難萬難愈懷懼
(천만난유성심)
直悟藏出虛空體
(직각고출허공수)
拔脚金剛腦後釘
(발각금강자후징)
突出眼晴全體露
(출출안정전체로)
山河大地是空華
(산하대지는공화)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지고 사적을 확대시켜 대가람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대웅전 주련의 내용은 이미 소개한(37호·95년 7월 19일자) 직지사 대웅전과 같다.

심검당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길을 찾는 곳이다. 마음의 칼이란 무엇인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선객들의 활달하고 치열한 구도정신을 이르는 말이 있거

망상 끊고 '마음의 칼' 찾는 곳

금강을 뽑아 버리면 참마 저 부러진다. 온몸 나투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니 산하대지가 바로 공화롭다.

니와 심검당은 자신의 번뇌와 망상을 베고 진여의 실상을 찾는 곳이다.

은혜사 심검당 주련의 내용은 퇴색되지 않은 초발심으로 천가지 만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성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면 결코 바른 진리는 허공중의 진수에서 오고 금강을 뽑아 버리면 참마 저 부러진다. 그런 자리에서 맑은 눈으로 법계를 바라보면 산하대지 모두가 허공중의 꽃임을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 허공중의 꽃이란 모든 형상의 실체가 망상으로 보이는 것일 뿐 본래 실체는 없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주련은 선정에 들어 깨우치고 모든 형상의 덧없음을 보라는 직책을 선객들에게 내리고 있다고 이해하면 무난할 듯하다. (인동 경안중 교사)

"불교 근본정신은 남녀평등"

신성현교수 주장
부처님은 과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대했을까. 사회에서 남녀 불평등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더구나 승단에서는比丘니즘들이比丘수尼들에게 비해 여러 면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장은 궁극적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장 가운데 남녀평등을 의식하게 하는 사건들과 표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불교는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는

8중법'을 여성출가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신교수는 이같은 불평등적 요소는 성차별이 보편화된 당시 사회질서속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가삼 등 성차별의 인식을 떨치지 못한比丘들에 의해 경·유이 결집 △성차별적인 조항이 후세에 삽입됐을 가능성 △역성과 남성이 모두 출가



신성현 교수

윤장 성차별표현 당시 사회상 반영일뿐 교단 출신성분 안가리고 여성출가 인정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신성현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제23집에 게재된 '윤장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불교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는 윤장속의 남녀차별적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신교수는 우선 윤장에 나타난 남녀불평등의 사례로 아난이 불타를 섬득해 여성을 출가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단의 문책을 받은 사실과, '비록 1백세의比丘니일지라도 새로 계를 받은比丘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라는 등의 '比丘니

할 경우 사회유지가 어려울 것을 고려했다는 점 등 당시 사회상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불교가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했음은 △불교가 처음부터 계급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교단에서 출신성분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과 △역성의 출가가 승인되고 초기불전에서 깨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 △대승불교에서 善男子와 善女人을 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불교가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신을 지녀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각국사 일연碑 뒷면 탁본 첫 공개

정병삼교수, 124字·시주자 10명 새로 확인

보각국사 일연 碑의 뒷면(陰記) 탁본이 처음으로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병삼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는 <한국학연구>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 '일연 비문의 단행'을 통해 간송문고(湖松文庫) 소장본인 '보각국사비합(普覺國師碑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이 탁본을 토대로 관직과 이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단행(斷行·재가신도를 일컫는 말) 6명을 새로 찾아냈다.

비의 음기는 음기를 짓게 된 배경

등을 적은 前文에 이어 분도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이번 탁본을 통해 1백24자의 새로운 글자와 승려를 포함한 시주자 10여명의 이름과 일연과 그 주변인물들과의 관계를 새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내다 보고 있다.

정교수가 이번에 공개한 간송문고본 '보각국사비합'은 가로 21.3cm, 세로 30.5cm 크기의 책으로 비문의 탁본을 너비 2.5~3.0cm의 갈다란 조각으로 만들어 29.5cm의 길이까지 나누어 붙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 23면으로 1면에 7행씩 배열돼 있으며 1행에는 대체로 12자씩 들어 있다. 탁본에 실린 비의 앞면과 뒷면의 글자수는 모두 1천8백72자다.

현재 일연의 생애를 기록한 碑는 파손된 채 일부만 남아 있으며, 일연 碑의 앞면은 정문이 밝혀진 상태이나 뒷면(음기)은 완전한 탁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정교수는 "아직까지 일연 碑의 음기 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탁본 공개를 계기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탁본들이 많이 나와 일연 碑 음기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數의 명칭 불교용어에서 유래

김병덕교수 밝혀
가장 큰 數인 무량수는 불교에서 온 말로 해어질 수 없다는 뜻으로 1에 0이 1백28개가 붙은 수. 그러나 현재는 1에 0이 68개가 붙은 수(10의 68승)를 무량수라고 부르며, 숫자를 부르는 방법이 18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무량수 바로 앞의 數를 차례로 보면 불가사의(不可思議)(10의 64승), 나유타(那由他·인도 수량의 단

위로 극히 큰 數)(10의 60승), 아승지(阿僧祇)(10의 56승), 항하사(恒河沙·항하의 모래 수와 같이 많은)(10의 52승) 등으로 이들은 모두 불교용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가장 작은 수는 정(淨)이라고 불렀으나 현재 가장 작은 수는 청정(淸淨)으로 소수점 이하에 0이 21개가 있는 數이며, 청정 바로 앞의 수들인 청(淸), 공(空), 허공(虛空), 허(虛), 육덕(六德), 찰나(刹那), 탄지(彈指·손가락을 한 번 펴는 짧은 시간), 수유(須臾·잠시, 잠깐의 뜻) 역시 경전에 나오는 불교용어가 그대로 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 무량사 미륵보살도는 조선시대 후기작품으로 미륵의 성스러운 줄을 장식한 띠를 띠고 있다.

국내 最古 무량사 괘불탱화 향토유적 지정

충남 부여군은 최근 무량사 괘불 탱화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괘불 탱화는 서기 1627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현존 괘불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길이 13.65m, 폭 7.5m에 본존불인 미륵불이 화면 전체에 가득히 묘사된 구도를 띠고 있다.

국보 같은사람 해체보수 문화재 관리국은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경주 같은사람 같은사람 2기가 노후화에 따른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4월말 중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인동화, 팔관회의 고승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외·장·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열」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불축행 사용품 일체
홍법등각등, 초발등, 영기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반, 교패(불자지집, 교통안전기원패)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현대불교신문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撰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자!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중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문서

- 문수세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煥·釋能嘉撰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 대장부론 李東煥·釋能嘉撰
물질을 찢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 법화경 강설 釋能嘉撰
값 / 3,000원
- 육도법문 李東煥·釋能嘉撰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을 이르는 길은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 금강경 육조해 근간
- 반야경 근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문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